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교회 서술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선근

'99 전반기 중현소식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일꾼 선발

1월 3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접수

일찍이 교회 설립 초기부터 중현교회 주요목표 중 하나로 정해지고 실천되어온 '천국일꾼 양성'을 위해서 도서장학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을 선발하여 천국일꾼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1999년도 전반기 중현소식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한다. 도서장학회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지체들이 생활의 전반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특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적극 봉사하고 활동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것을 기대하고 있다.

1. 선발(추천) 기준

가. 신앙이 독실하고 교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 타에 모범이 되는 자(가족에 배 참작)

나. 천국일꾼의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장래에 희망되는 자(교회 봉사자)

다. 중현교회에 등록된 중·고·대·대학원, 신대학원 재학생
다. 학교성적이 우수한 자(B학점 이상)
다만, 중고등학생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마. 중현교회 등록 세례교인의 유학중인 자녀로서 장학생 선발기준을 준용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바. 선교사 자녀

2. 추천인 자격·당회장, 소속 부서장 및 지도교역자, 교수장 및 지도교역자

3. 선발방법-서류전형, 논술, 면접

4. 제출서류-장학금 청원서, 이력서(사건전력), 자기소개서, 서약서, 입학

허가서 사본(유학시험 합격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추천서, 전학기 학업성적표, 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계좌번호, 성명) * 서류에 관한 문외의 교육관 1층 교육국으로

5. 신청서 접수기간 및 장소-1999년 1월 31일~2월 14일(다만 월요일은 제외), 교육국

6. 논술 일시 및 장소-1999년 2월 20일(토) 오전 10-12시, 교육관 507호

7. 면접 일시 및 장소-1999년 2월 20일(토) 오후 1-5시, 교육관 507호

8. 기타문의-교육국(교육관 103호, 구내전화 473번)

장학생 선발 일정표

일시	내용
2. 10	장학생 선발 및 심사위원 임명(당회)
2. 14	장학금 신청 마감
2. 20	논술 및 면접시험 / 채점
2. 23	서류심사
2. 26-27	장학생후보자 수련회(대학생 이상)
2. 28	장학생후보자 훈련(중고등학생)
3. 2	사정회
3. 3	당회적 전달
3. 10	'99전반기 장학생 확정 (일반장학생 및 전액장학생 후보자)
3. 14	장학생 명단 발표(주간종현) 및 장학금 지급(찬양예배 후)

* 이후 6개월간 전액장학생 후보자 훈련(일정에 따라 진행)

다음주일은 선교주일

온 땅에 복음의 씨 뿌려지길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

1월 말부터 단기선교 계속 돼

선교위원회는 다음주일(24일)을 선교주일로 정하고서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와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선교가 전통과 제도에 의존하는 선교방식을 지양하고 복음에 대한 성도들의 순전한 열정과 그 위에 임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로 나타나는 '믿음 선교'인 점을 생각할 때, 성도들의 품어지 않는 기도는 절대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은 1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스리랑카 단기선교와 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인도 단기선교, 그리고 2월 9일부터 시작되는 방글라데시 선교를 통해 성령님의 강령한 역사가 임하시도록 힘 있게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선교주일을 맞아 각 부서별로 정해진 지원교사들을 위해서 지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어야 하겠다. 1999년도의 후선교사별 지원부서는 오른쪽 표와 같다.

선교사 지원부서

이름	1999년도 지원부서
이준교 선교사 (이집트)	유지부, 중동3부, 중남2부, 사방부, 할랄무이찬양대, 12교구, 12교구
안석필 선교사 (수리남)	유지부, 중동2부, 대학부, 소양부, 가브리엘찬양대, 2교구, 11교구
김영대 선교사 (수단)	중동1부, 중남1부, 영어교육부, 사기국부, 아덴찬양대, 12교구, 3교구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일본)	유지부, 중남1부, 호신나찬양대, 4교구, 13교구
김형선 평신도선교사 (뉴질랜드)	중동부, 아메리칸부, 실로암찬양대, 5교구, 14교구
이기성 평신도선교사 (호주)	영양부, 소년부, 시몬찬양대, 6교구, 15교구
김영태 평신도선교사 (미국)	학아부, 신촌가정부, 7교구, 16교구
고은민 평신도선교사 (베네)	청년3부, 임마누엘찬양대, 9교구, 17교구
허요섭 평신도선교사 (아일랜드)	고동부, 청년2부, 8교구

청년1부 겨울수련회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청년부'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

청년1부는 16일(토)부터 18일(월)까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는 청년1부'라는 주제로 겨울수련회를 가지고 있다.

말씀 집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금번 수련회를 통해 지도 이슬람 목사는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청년을 향한 경교' 등 네 번에 걸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여간상 토요일 오후 3-9시와 주일 정규집회, 월요일 저녁 7-9시 30분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청년1부가 말씀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세움을 입는 은총에 잠길 수 있도록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성악강습회도 열릴 예정이며 현재 계속 접수를 받는 중이다.

한편, 찬양위원회에서는 분주함을 피하기 위해 80명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을 예정인 본교의 성도들 중 등록을 원하는 이들은 24일까지 완료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핸드벨라이어

창단10주년 기념 가족음악회
어제, 은혜 중 마쳐

16일 오후 4시부터 갈릴리움에서 진행된 핸드벨라이어 창단 10주년 기념 가족음악회가 은혜롭게 마쳐졌다. 이날 연주회에서는 '주 음성 외에는'의 10여곡의 연주와 함께 핸드벨라이어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회계 실무자 교육

시간: 17일(오늘) 15:00

장소: 교육관 307호

대상: 각 기관 회계, 부회계, 총무처장 혹은 총무

강사: 차신득 장로

제정 위원회

1월 기도원 담당

김필수 목사(12교구 지도)



△ 지난 1월 13-14일 양일 저녁에 걸쳐 진행된 99년도 청지기훈련이 은혜 중 마쳐졌다. 연인원 6천여명이 참석하여 성령하에 진행된 금번 훈련에서 김성관 위임목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청지기'의 본분과 사명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다.

제2회 찬양대지도자 강습회

본교회 성도들은
24일까지 산형

찬양위원회는 현재 2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에 걸쳐서 진행될 제2회 전국 찬양대지도자 강습회를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금번 강습회는 지난 1회와는 달리 찬양대원과 독창자를 위한



김창인 목사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성취 (이사야 34:16-17)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선한 일에 대한 상급과 악한 일에 대한 심판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한 엄숙한 약속입니다. 이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며 가장 작은 사건까지도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읽는 사람은 읽지 않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되 정신을 차려서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대야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하여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1. 성경에는 만 가지 일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 이것들이 하나님과 빠진 것이 없고...” (16절)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일을 계획하신 말씀이고 또한 그대 이 세상 권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천지를 정리하시는 지체로운 말씀입니다. ‘누에 대하여는 어떤 눈을 가져라, 귀에 대하여는 무슨 말을 하여라, 마음에 대하여는 어떤 마음을 품어라, 사림은 어떻게 하여라, 정치는 어떻게 하여라’ 등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면 만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이 빠진 것이 하나님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님과 없습니다. 그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 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빠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을 말씀에 비추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서 보는 의혜 보고 저 사람을 찾아서 신성 단려하고 하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 길을 찾는 것이지 세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할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끊어 버려야 할 것을 모두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 줄 알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2. 성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 하나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16절)

‘짝’이란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마’ 약속하신 말씀은 그대도 복이 되고 ‘내가 의혜로 행하면 빌

망하리라’ 심판을 선언한 말씀은 그대도 심판을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짝이 없는 말씀이 없으니’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나이 어린 요셉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다. “요셉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니 나의 12형제 중에서 11형제가 네게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겠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팔아 먹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방축한 죄를 범하고 고하고는 이것을 요셉에게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짝이 없는 것과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3년이란 기간의 고생을 통하여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요셉에게 권비와 혼인을 시켰습니다. 노예생활을 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어서 연단을 시켰습니다. 나이 어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세계를 호령할 수 있게 하려면 가장 뜨거운 불꽃속에서 넣어서 연단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하나님과 없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인 줄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베가 무너지리라” (온 3:4) 40일을 기한으로 정하고 멸망을 선언하셨습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하여 주실 마음으로 선언하셨습다. 니느베는 회개하였습다. 그 결과로 40일 후에 멸망이 없습다. 그러나 100년이 지나서 멸망하였습다. 니느베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으나 다시 마음을 놓고 죄를 범하다가 어찌 망하였습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심사로 피하고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잠시 심판을 피하였으니 다시는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다. “이 예수를 죽여라” 하고 다 소승을 권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인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는 의는 품고있습다. 그런데 빌라도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은 죄가 없었고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온 무리가 악한 자들이었습다. 벼를 잡은 사람이 ‘이놈, 너희가 못된 놈이다’ 이래야 옳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인성을 잃으면 총독의 권세를 누리려는 일제 거장이 올 것만 같았습다. 그러나 양심에 기스를 주지 않으니까 적당히 절충을 합니다.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 놓고는 ‘내가 보기에 죄가 없으니 이 정도로 벌을 하면 되지 않겠나’ 빌라도가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았으니 양심상 죽일 수 없다고 선언을 했습다. 그러나 군주들은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에 대한 반역자라고 합니다.

바로 그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여보, 당신은 예수님을 절대로 죽이지 마시오. 그는 의인입니다. 나는 어젯밤 꿈에 예수로 인해 애통을 했습다” 하고 가장 가까운 아내의 충고를 받고 또 한 번 예수님이 의인인 줄 알았습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의롭고 양심이 비추어 보아도 의인이며 아내의 말을 들어 보아도 의인인 줄 알았습다. 이만하면 예수님을 놓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권세를 오래 누리고 잘 살아가 보자는 욕심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주었습다.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몇 달이 못 가서 빌라도는 총독의 자리에서 파면당하고 자살해 버렸습다. 우리는 이 무서운 역사적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형벌이 당장 오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다해도 때가 오면 벌을 받아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의 감이 보응이 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 이는 여호와와 그의 이름과 함께하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6절)

“모으셨음이라”는 이루셨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지체로 계획하고 진실하게 발표하시고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 반대하고, 하나님의 세안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할 때에 어찌 자라겠으며, 하나님의 진실하신 말이 중도에 어찌 거짓말로 변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3. 하나님이 구역을 정해 놓으셨습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천수를 줄을 띠어 그 땅을 그릇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구역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다에 밀물이 밀고 들어올 때는 모든 것을 휩쓸고 가는 광장한 세력으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구역만큼만 들어오고 다시 물러갑니다.

한 지역을 넘어서기 남에게 손해가 끼치면 그 이상의 고생을 자기가 합니다. 개인도 나라도 권세가 있다고 약자를 누르고 빼앗아 먹으려고 탐욕을 들어

도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개인 재산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생각해 보면 호랑이나 사자처럼 사나운 맹수들이 악한 동물들 다 잡아 먹어서 세상에 맹수들만 가득할 것 같으나 오히려 악한 동물들은 더 많아지고 강한 동물들은 점점 없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한 구역에 정해 놓으셨는데 하물며 당신의 백성을 위한 보호하심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위하여서도 구역을 정해 놓으셨는데 독생자의 피로 사신 생명들을 어찌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모든 문제를 비추어 보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면 땅 위에서든 평안과 부요와 존경을 받으므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용당하는 바가 아니습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인간의 욕심을 채우려는 자는 얻을 것 없고 매달려 맛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여러분은 바로 살려고 은혜를 간구하시는 주의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주십시오. 또한 세상을 떠나면 황금복 부면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역을 정하신 것을 알고 나의 구역을 침범하지 말고 또한 내 구역을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시에 빼앗기는 듯싶어도 하나님의 구역을 지켜 주시고 또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켜 주십니다.

4.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말씀으로서 인간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해결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선한 일에 대한 상급과 악한 일에 대한 심판에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계가 구역이 정해져 있나니 나의 구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원수에게 침해를 당하여 나의 구역이 없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다가 세상을 이별하면 준비하신 하늘나라에 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소는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땅에서부터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쑈**



김 성목 목사

가장 짧은 기도

(마태복음 14:30)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를 타고가는 제자들

예수님은 정경만 5천명이 되는 무리를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먹였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제자들을 통해 열두 바구니가 넘게 남은 음식들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이 이적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제 그 기적 직후 예수님은 무리들을 돌아가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기 위해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던 시간은 깊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 오는 즈음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수시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심상치 않게 불어 오자 배를 삼킬 듯한 높은 파도가 밀어닥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24절).

물 위를 걷는 믿음

우리들의 삶이란 늘 이렇습니다. 원치 않는 강한 바람과 큰 파도를 감작스럽게 만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명의 위험도 당합니다. 제자들이 바로 그런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25절).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흥분하여 자신이 물 위로 걸을 수 있도록 명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오라!” 이 한 마디로 베드로는 배에서 나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서 다 갔습니다(28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이 마음에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물 위를 단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행함이 있는 복된 믿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곧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 베드로의 이 짧은 외침의 간구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과 시험

저는 베드로를 좋아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고 통영을 따라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론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는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 있지만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분명히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

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과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그 믿음의 역사에 감격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부터 떨어져서 IMF, 밀레니엄 버그, 어수선한 가정문제 등 복잡한 상황들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 버린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분석적 지식에 매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유익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지고 실패하여 결국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직설적입니다. 인격적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매우 시급한 기도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던 기도였습니다.

강제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기도였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리를 따져가면서 나온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핵심을 찌르는 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는 수 분씩이나 걸리는 기도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기도를 모두가 매우 중대한 기도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기도는 1초면 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만하셔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1초의 기도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1초의 짧은 외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기도는 그 길이에 의해서 응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가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냐가 중

매우 시급한 기도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던 기도였습니다. 강제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온 기도였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교리를 따져가면서 나온 복잡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온전히 의존해야 하는 진리를 담고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자니, 이 짧은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들의 기도는 주님께 들려지고 모든 즉각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생활을 할 때에 기도는 역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즉시로 들으시고 즉시로 역사하십니다. 이때 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성경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나가십니까? 세상과 공중에 세력을 잡고 있는 사탄을 대항해 싸우러 나가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과 혼자서 힘으로 사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허무한 자기 확신의 차이요 구체적인 능력과 형식적인 율법주의의 차이입니다.

겸손하고 순순한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수식으로 치장된 긴 기도보다는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짧은 기도가 더 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직도 중언부언하는 긴 기도가 더 영적으로 좋은 기도일 것이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자비 버리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길게 할수록 더 거룩해지는 근거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한다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요. 오랜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얻어내는 부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의 기도는 항상 마음을 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까. 겸손하고 순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구할 것을 바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의식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불완전한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현교회에 가득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별**

본심을 넘어서는 단순한 믿음

사람들은 흔히 분석하고 조사하여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설명될 수 없는 것은 무시해 버립니다. 물 위를 건너 베드로가 왜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그 역시 물 위를 걷고 있는 자신을 보고서 스스로 놀라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지? 따도 생각하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빠져 죽어야 하는 것으로부터 구원을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가 구원의 열쇠였습니다. 이는 장황하고 멋있는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기도는 간단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아마도 이 기도가 가장 짧은 기도일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짧은 기도에 예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즉시로 그의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31절).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의식적인 기도를 장황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요합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외침에 대하여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짧고 진실되게 외치십시오

또한 베드로의 짧은 기도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과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가난의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낙심되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기도를 하십시오. 짧고 진실되게 외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인생에 붙어 오는 그 어떤 광풍이나 파도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외침입니다.

직설적이고 인격적인 기도

이 짧은 기도는 직설적입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즉시 간절히 말합니다. 또한 이 짧은 기도는 인격적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기도였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내용면에서나 교리면에서나 매우 건전한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는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국내외국인선교부

차량봉사자와 통역봉사자를 찾습니다

차량봉사자 - 경기도 광주, 수원, 성남, 이천, 군포, 의정부 등에서
교회로 오시는 성도

선교위원회 국내외국인선교부에서 자립 봉사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작년 1월 매 주일 2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석하던 본 부서에는 현재 80여명이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1년간 50여명의 근로자들이 귀국하였으나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 부서 제적으로만 160명이 넘고 있습니다. 재적의 50% 정도만이 주일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이유는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로 서울 외곽으로 거리적으로 멀리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주로 밤샘 작업과 주말 작업을 맡아 일하고 있는데 이들이 주일 아침 8시 이전에 교회로 출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법적으로 약점을 가진 이들이 많아 교회로 오고 가는 길에 다른 한국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현 교우들이 근처의 외국인 근로자 공장을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교회에 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봉사하시는 교우들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서 출발해야 하는 수고를 가져야 합니다.

한때 모슬렘, 힌두교도, 불교도, 무신론자였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은 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으며 또한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교우는 선교위원(전화 552-8200, 교환 356-35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봉사자 - 몽골어, 방글어, 방글라데시어로 통역·번역할 수 있는 성도

국내외국인선교부에는 현재 7개국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인도, 파키스탄, 몽골, 중국, 방글라데시) 출신 외국인들이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매 주일 오전 9시 아멘홀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데, 영어, 스리랑카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로 동시 통역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봉사자들이 그 나라 말을 배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선교연구원에서 몽골어, 스리랑카어, 중국어, 영어의 초보 단계를 이수했고, 올해는 좀더 심화된 과정을 배울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동시 통역이 되지 않아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데 애로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특히 몽골어 통역이 필요하고,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쓰는 방글어, 그리고 방글라데시어 역시 통역이 필요합니다. 출현 교우 가운데 삼기 언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한 교우의 자립 봉사를 에게 기대하고 있으니 꼭 선교위원회(전화 552-8200, 교환 356-358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미의 제사가 곧 예배

조 신 욱(집사, 가브리엘현양대 지파장)

초대 교회 때부터 다 미온이라는 성경 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뉘사부터 애타는 땀이 된 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삶에 상상지도 못했던 큰 은혜를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입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구워 먹던 빵을 가져와서 먹었다. 이처럼 구원의 감격의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한 자들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르게 된다. 그 입술에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의 열매가 열린다.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미의 제사'가 되는 것이다. 이 '천미의 제사'가 곧 예배인 것이다.

초대 교회에서는 절교를 제외한 모든 예배의식이 노래로 진행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여 애써서 사용되는 언어는 보통 언어가 아닌 영적인 언어로 드러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시편은 물론 성경봉독과 십자가 기도까지도 음악을 붙여 노래로 불렀던 것이다.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 순서에 따라 불려졌던 찬송들이 서양음악의 음악적 형식이 되어 음악사적 발전까지 거여하였다. 초대 교회 때를 빼면 곧 찬송이었으며, 찬송이 곧 예배였으며 또한 영적인 언어였던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삼위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의식의 변화와 함께 예배에 있어서 찬송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어 현재에 와서는 찬송은 예배 순서에 따라 중간중간 부르게 되는 순서의 한 부분으로, 더 나아가 예배를 도와 주는 일종의 장식거리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다. 그래서 찬양대의 찬양과 헌금송, 송영, 애제 찬양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인식하지 않고 사람이 듣는 음악의 한 종류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회교로 남아 있음은 감사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천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두 가지로 제안하련다. 첫째, 주일 예배시간, 집회시간, 차 안에서의 가정에선, 그 어느 곳에서 찬송을 부를 때를 때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드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찬송을 받으신 합당한 분은 성삼위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찬양대의 찬양이나 독창, 중창, 악기 연주시 드러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임을 인식하여 음악을 감상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자세로 찬양에 동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드러지는 모든 음악적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한 '천미의 제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유년, 초등, 소년부의 예배 시간 변경에 따른
기대와 달라진 모습들

효과적인 분반공부와 하나됨을 위한 노력

1999년 을
하여 하나님께 새
물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교
회 이교, 저자에서
달라진 것들을 볼
수 있다. 그 중 하
나가 유년부, 초등
부, 소년부의 예배
시간 변경이다.
예배 시간이 10
시 30분부터 12시
까지로 바뀌게 된
이유는 9시 예배
를 드리는 아이들
은 계속 9시 예배
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는 아
이들은 계속 11시
예배를 드리기 때문
에 한 부서, 한 반이
먼저도 서로를 잊지
못한 부서로서의
일체성이 형성되기
어렵고, 분반공
부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여 효과적
으로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은 아이
들이 서로 같은 부서로도 하나님께를 느
끼는 것과 같은 행사에 참여하여 있어서도
서로 동일한 감정을 나눌 수 있어 교
사들이 고요 해사를 준비하는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소년부는 이 하나됨을 이용하여
같은 학교 학생들을 모아 학교 전도로 환
성화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
전보다 아이들이 함께할 말들을 준비
하는 시간이 길어져 좀더 많은 교육 준비
를 할 수 있고 분반공부 시간도 20분 정도
늘어나 여유를 가지고 분반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유년부는 아이들과
교사가 대화와 토론을 하며 참여하는 분
반공부, 초등부는 서로의 일상 생활을 나
눌 수 있는 분반공부, 소년부는 시청각
교재를 이용한 분반공부가 되도록 계획



충분한 분반공부 시간 확보와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새 시도
기도와 지혜로 극복할 과제들 남아

공부를 하게 하고 주보를 접거나 나눠
주는 일 등 봉사 활동을 통해 믿음을 키
워 가는데 도움을 주려는 계획으로 학
부모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이런 통합으로 한 반의 제적이 6, 7
명에서 11명~14명으로 늘어나 교과가
이들을 세심하게 관심을 갖기 어렵고
분반공부를 할 장소가 비좁아 아이들이
자신에 속해 있는 반에 집중하기 어렵
다는 점과 찬양대의 간단한 연습과 모
자라는 가운데 부족 등도 나타나는 문
제점인데, 기도과 지혜로 극복할 과제가
아 할 과제이다.

학교나 학원 등 그 어디에서든 책임
질 수 없는 어린 영혼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교회 교육은 현재 대부분의 교회
에서 몸살을 앓고 있고, 적절한 돌파구
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교회는 학생들의 입
장에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 교육할 수
있는 안경된 교육체계를 하루빨리 마련
하여 '천국인간 양성'의 주요 목표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어야겠다. (백주영
기자)

별보기

조 제 민(전도사, 고등부 부지도)



별 보는 것을 참 좋아한다. 그 겨울 그 별을 찾아 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본다. 별을 보고 믿음의 위로를 받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 별 아래 들녘에서 눈물 참던 다윗을 생각해 본다.

있게 되었다. 겨울이 되면 유난히 눈에 띄는 오리온자리와 페가수스, 플레이데스, 황소자리의 별들을 바라 보면서 주을 겨울 호호거리며 더 뜨뜻해진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겨울 그 별을 찾아 왔던 동방의 박사들을 생각해 본다. 별을 보고 믿음의 위로를 받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본다. 별 아래 들녘에서 눈물 참던 다윗을 생각해 본다.

일년 새 눈이 또 나빠졌나보다. 별들을 볼 수는 있는데 그 별들 뒤에 베를이 두신 그분의 손길,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흐릿해졌다.

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본다. 내 마음 가득히 이 친구들을 담고 싶다. 이 친구들을 별 보듯 하라, 마음 속으로 이 친구들이 결하여 할 결심들을 그 별들 위로 기도하여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다. 이름을 외우고 불러가며 이 친구들 위에 또 아브라함을 보고 싶다. 속에 담겨진 다윗을 보고 싶다.

안경을 써야겠다. 이번엔 좀더 도수를 높여서, 별을 더 잘 볼 수 있게.

주님의 마음을 몰아야겠다. 이번엔 좀더 눈물을 담아서, 영혼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

힘은 우리를 더 강하고 굳세게 만들어 줄다.

러시아의 한 과학자는 두 그룹으로 동물을 선정하여, 한 곳에는 좋은 환경을 주고 다른 한 곳에는 좋고 나쁜 환경을 고루 주어서 동물들을 수용하였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좋은 환경에 수용된 동물들은 금방 병들고 노쇠하였지만 좋고 나쁜 환경이 고르게 섞인 곳의 동물들은 편히 쉬다가도 적과 싸워야 했고 먹이를 찾아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평범한 젊음을 유지했고 또한 강인했습니다.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작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한 뒤, '죄와 벌' 등의 명작을 썼습니다. 단테는 정적들에 의해 추방된 후 '신곡'을 썼습니다. 솔제니친도 오랜 강제 수용소 생활 끝에 노벨상 수상작인 '수용소 군도',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등을 썼습니다. 또한 존 번연은 오랜 감옥 생활을 통해 '천로역정'을 저술했습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시험은 우리의 삶을 더 생기 있게 만듭니다. 그러한 시험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찾아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시험이요 고난이 찾아 옵니다. 우리는 이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힘써야 하였습니다.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가는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의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부에 올라온 2주 동안 ...

정겨운 인사들 “안녕! 왔니? 있다보자”

박 순 문(대학부 1학년)

“안녕! 왔니? 우리 GBS모임 저기야. 좀 있다보자.” 대학부에서 처음 집회를 드리고 난 후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조장 형이 내게 건넸던 말이였다. 그때 속으로 아직 조장 형을 알지 못하는데 참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조장 형과 몇 번은 통화했으니 그랬지 하는 마음으로 난 친구들을 만났다. 그런데 저쪽에서 얼굴만 알고 지냈던 신배가 오면서 ‘나 송몽이 저?’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다. 약속까지 하면서 술까지 너무 이상했다. 고등부에서 지낸 때는 막 올라온 후배와 있는 정말 찬 바람이 불 정도였는데 다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참 따뜻한 것, 내가 대학부에 올라와서 받은 첫 인상이었다.

GBS시간이었다. 고등부배우는 달리 선생님이 없다는 것에 조금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서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제목을 나누면서 시간이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솔직함이었다. 서로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누는 이야기들이 고등부에서 말하기 싫다고 뱉는 불꽃들만 있었었다. 그런 것들이 막 들어온 나에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부여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것이 두 번째 받은 인상이었다.

그리고 학년 모임, 이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대학부인 한 신배가 학년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아 기대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이 모임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를 수 있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야기하고 웃는 것들이 서로를 위로 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전도사님과 간사님이 첫 모임의 방향을 잡아 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다가온 학년 모임이 대학부에서 생긴 세 번째 인상이었다.

이제 대학부 2주를 생활해서 아직은 적응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주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풍성히 느껴지는 주님의 말씀과 형제 사랑. 모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는다. 이제 세기기 대학부원들이 되고 주님과 약속한다. ‘주님, 제 주제를 많은 것들이 변했고 또 변하고 있지만 주님 믿는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해외에서 온 편지

“방글라데시입니다”

이 종 원(대학부 6학년)

안녕하세요?

먼저 생애 복음이 받으시고 율한 해 주님께 주신 신도제복을 갖고 성실히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학교 방학을 이용하여 다른 선교사님들 몇 분과 함께 지난 27일과 28일 4월과 방글라데시의 남쪽의 휴양지인 쿡사바를 다녀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과 주님이 주신 자연의 그 풍성한 가운데서 생애를 맞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록 12월 31일, 마지막 98년도를 ‘도난’과 함께 맞이했지만 한 톨 없이 99년을 맞이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생애 맞아

기도회를 끝내고 속으로 가보니 제 배낭을 통째로 갖고 갔더군요. 드디어 방글라데시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었다며 선교사님들께서 위로를 하셨답니다. 그때 갖고 있던 저의 모든 재산(돈, 옷 등)을 비록 잊아졌지만 99년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생애를 맞이하고 또 지금과 지 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에,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보내 주신 선영회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번 단기선교대 제가 방문했던 ‘보그라’는 지역의 월드비전에서 보내온 편지와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후원과 방문에 대한 감사와 그 후원에 대한 결과보고를 보내 왔답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던지요 편지를 보면 서 다시 보그라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기간을 정말 성심껏 보냈으면 합니다. 기도의 길이를 체험하여, 영적 전쟁을 항시 유의하면서 말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의 예배에 열려나서서도 학교가 이사를 고려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인교회 건물을 사용하려 하는데 먼저 그곳을 사용하던 한인학교와의 좋은 관계와 비품과 장소를 사용할 때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영교사, 믿는 신영인으로 영국인)을 채용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떠난 후, 후속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이 꼭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시고요. 주님의 사랑이 라마단을 지내는 이 모슬렘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칠 때



오 현(고등부 3학년)

이 시험은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

어수룩한 새벽별. 어둠을 가르며 조소조소 빛 노닐 곁으로 회회를 향해 가서는 권사님들. 매일 새벽을 지키시는 분들이다. 이웃길 활짝나 같은 인자하신 권사님들을 만나보았다. 기도대장으로 소문나신 조순희 권사님(78세)과 새벽기도를 위해 교회 가까이로 집을 옮긴 김윤애 권사님(82세). 그리고 평범에서부터 원로목사님을 찾아 신앙생활을 하신 한심복 집사님(76세)으로부터 신앙인 아이기를 들을 수 있었다.

조순희 권사님 이야기:

30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 18세에 안 믿는 9남매 중가장 맏머리로서 시집와서 죽도록 일만 했지. 천성이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그저 참고만 있었어. 그래서 시집은 지 30년만에 천정에 가서 하룻밤만 겨우 자고 다시 돌아왔어. 왜 그리 일이 많은지 밤 먹음 시간도 없었어 거의 굶다시피 일에만 매달렸지. 그러니 몸이 안 아프겠어. 거의 죽어가는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시어머니, 남편 모두 아픈 나를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함께 고쳐 다니게 되었고 그뒤로 9남매가 모두 믿게 되었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와 우리 가정을 살리셨으니 감사할 따름이야. 하나님께 만나게 되면 서부터 새벽기도를 다니게 되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3시면 하나님께 가서 깨워 주셔서 교회로 향하지. 나라와 교회의 9남매 시집식구들과 6남매 나의

새벽을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들

“천만에 올리는 하나님을 올릴,
“년 기도만 해라,
내가 다 할테니까”

“연말에는 하나님께
꽃이루어 주신다고
믿으면서 ...”

“젊은 사람들이 혼자나 둘이 차를
타고 갈 때만 찾아오는 노인들을 대위
하에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



왼쪽부터 조순희 권사, 김윤애 권사, 한심복 집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보면 어느새 밝은 아침이야. 내 힘으로는 5분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주셔서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도하게 하시지. 걱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년 기도만 해라. 내가 다 할테니까’ 그 말씀 참 잡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지. 앉으니까 서나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긴 해.

김윤애 권사님 이야기:

교회에서 나눠 주는 예쁜 꽃종이(지금의 임시)를 받으려는 마음에 어릴 적 부모 교회는 다녔지. 그러다가 안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는 바람에 잘 다니지를 못했어. 그러다가 32살에 혼자 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 우리 교회에는 중무로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강남으로 이사오면서 나도 교회의 근로도 짐을 옮겨왔지. 아직도 자녀들과 손자들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와 주실거라고 믿고

면서, 새벽에 집을 나설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찬양을 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느끼며 찬양을 부르면 어느새 교회에 와 있는 거야. 감사하지.

한심복 집사님 이야기:

평복에서부터 원로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 우리 큰 오빠도 순교하셨어. 그런데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좋지 못한 장사에 손을 대 교회를 오랫동안 떠나게 되었지. 마음 속으로는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해 봤었지. 그러다가 장사도 어떻게 되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 그래서 권사 직분도 받지 못하고 집사로 있는 거지. 늘 새벽 기도회 하고 있을 때 요새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잘 다닐 수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야. 젊은 사람들이 혼자나 둘이 차를 타고 갈 때면 걸어가는 노인들을 대위하게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

조순희 권사님댁에서 새 봄과 함께한 시간은 많은 도전과 생각을 하게 하겠어. 특별히 새 봄이 많음을 하시면서 ‘감사’라는 말이 입에서 떠날 줄을 모르셨다. 끝으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모두 ‘형편없이, 세상이 바뀌어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주님의 선한행동 중이 되라’였다. 손수 만드신 맛있는 수제과와 향긋한 과일을 대접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경 기자)

계획 세우기와 시간관리

이 형 수 (안수집사, 청년부 부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준 것이 있는데 하루에 24시간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 누구도 변할 수가 없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동일한 연령, 동일한 시대를 살았는데도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상당 부분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달린 것이다. 예배소서 5장 15-16절은 시간 사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적절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무의미, 무목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의미있고 목적있는 삶을 사십시오. 아무리 곤란한 시라도 당신의 시간을 최대로 선용하십시오.”

바른 시간 사용은 바른 계획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초등학교도 끝난 때부터 시간계획을 짜왔다. 그러나 계획을 실행할 만한 자기관리란 안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계획이 실행되지 않는 다른 이유는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계획이란 미래에 달성하고자 하는 바의 청사진이다. 청사진을 그리려면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과 능력, 주변 여건들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이란 백지이다. 자기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 넣는 것과 똑같다. 우리는 생각 없이 무턱대고 살아간다. 그러나 계획한다는 것은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낸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계획적인 삶과는 엄청난 차이를 이루어 낸다. 인생은 시행착오를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므로 용이주조하게 계획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라. 앞으로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20년, 30년 후의 나의 모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과 시간계획을 세웠기에 자기 통제에 대한 훈련이 가능한 점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1999년을 시작하면서 한 해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해 보자. 어떠한 계획이든 계획에는 목표, 활동, 시간계획, 평가, 감독자(supervisor)가 포함되어야 한다. 목표는 영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정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 각 영역마다 좀더 세분화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표를 월별로, 주별로 세분화 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활동은 구체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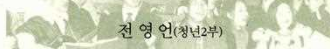
시간계획은 전체 계획과 균형이 맞아야 한다. 의욕이 넘쳐서 많은 계획을 생각했지만 시간 배정을 할 수 없다면 그런 계획은 계획이 아닌 것이다.

이처럼 연간 목표와 활동, 시간계획을 세웠다면 그 연간계획에 입각한 월간 계획, 기본 주간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간 계획만 세워 놓고 기다리면 1, 2개월이 지나도록 실행도 못하면서요 ‘이제 1년의 시작일 뿐이야.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하면서 계획표들 들여다보며 만족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중간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이 계획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평가해 주며 감독해 줄 사람(supervisor)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잘 배려하고 계획을 세우고 1년을 살아간다면 1999년에는 연인과 다른 무엇보다 한 해가 될 것이다. 우선 연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과 시간계획을 세웠기에 자기 통제에 대한 훈련이 가능한 점들이 눈에 띄게 될 것이다.

서울역에서의 아름다운 밤



전 영인(청년2부)

IMF와 한국에서 어찌있어 성탄은 다가왔고 한 기쁨이려 하는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행진지와 목적들을 안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중 60여명의 한 무리가 있었다. ‘내게 잊힌 기쁜 소식’과 한 이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역 광장에 모인 그 사람들. 충헌교회 청년2부 회원들.

현란한 내은사인과 그속 울리는 유행가 속에서 마치 남은 성탄을 켜는 소년의 심정으로 그들은 그렇게 외치고 찬양했다. 이번 서울역 출전도는 청년1부의 명동집회와 더불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서울역 찬양회를 거처간 수많은 청년2부 신도들을 이어 20여명의 팀원이 매주 목요일 저녁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탄 전야의 집회에는 IMF의 부산 물인 수백명의 노동자를 위해 찬양팀 원로목사에 김남, 따뜻한 차와 양말을 준비해서 나눠 드렸다. 무장 강도의 기도에도 자기속인 노동자들을 보며 그들의 기도 속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 더 받으려고 대열을 이탈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질서있게 나눠 있고 몇몇이 먹는 모습에 추운 겨울 날씨가 포근해지는 듯했다. 목사님의 말씀 선포와 계속되는 찬양에 바쁜 길을 중에 기도하고 가는 아이들은 아무런 무, 우리 집회 중간부터 끝날 때까지 같이 찬양해 주신 동행한 아버지, 특히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총아였던 364장을 불러달라던 남무한 오자원의 노동자 아버지, 열려나오 위해 회침거리며 찬양에 맞춰 춤추던 두 아버지. 그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받은 우리의 형제자이던가? 주위 청소를 끝으로 2시간이 넘는 집회는 이렇게 끝났다. 점점 냉기가 올라와 발이 저려왔다.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 중 하나님을 바라볼 자가 되려 몇 명이냐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이 어부야 하는 최선의 일이었듯이 오늘도 내일로 ‘예수님’을 외칠 수밖에. 우리는 성탄 전야를 그렇게 보냈다.

탐방 - 할렘루아찬양대

날로 날로 성령과 영감이 충만하여 성도들이 그 찬양을 듣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찬양대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는 할렘루아찬양대(대장 이종석 장로, 지휘 김철권 집사, 반주 조희영 집사)는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한 찬양을 드리겠다는 굳은 다짐을 안 1999년을 맞았다. 주일 3부예배를 섬기는 할렘루아찬양대는 명실공히 교회의 중심 찬양대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날도 혼신의 힘을 다해 준비에 여념이 없다.

20대에서 40대의 고른 연령으로 구성되어 조화롭고 성숙한 음성으로 찬양하는 230명의 할렘루아 대원들은 주일 오전 9시 나사렛홀에서 모여 30분간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으로 주일을 시작한다. 이 시간에는 매주 읽어서 성경 말씀들을 이어서 모두 함께 소리를 맞춰 성경 읽기를 한다. 이어서 10시 30분까지는 하나님께 받으시기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 찬양 연습을 한다 11시 전에 찬양대석에 앉아 예배를 준비한다.

예배가 끝나면 매주라기홀에서 대원원들의 친교를 다질 수 있는 20분 정도의 간식시간이 있다. 이 시간에는 대원들 중에 은혜를 받은 대원이 뛰어난 과일을 함께 나누기도 한다. 대원원들의 친교가 끝나면 1시부터 2시까지 할렘루아홀에서 다음 주일을 위한 오후 연습을 한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연습은 오후 5시부터 7까지 나사렛홀에서 탐과 정성으로 진행된다.

할렘루아찬양대는 올해부터 각 파트별로 8명 이내의

경건한 마음으로 신령한 찬양

기도하는 자의 찬양만이 드려질 수 있음을 온 몸으로
고백하며 여러 기도대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준비

서로를 섬기는 부주한 손길들이 아름다워
교회의 중심 찬양대로서의

막중한 사명 아름답게 감당할 터

대원들이 한 팀을 이뤄 기도모임을 갖는다. 앞으로 할렘루아찬양대를 하나되게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는 데 힘이 될 이 기도팀은 모두 28팀이나 된다. 이외에도 신앙부, 성의부 등 8개의 부서가 앞장서서 대원들이 봉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먼저 신앙부는 아침 기도를 준비하고, 성의부는 대원들의 생일

축하와 친교를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봉사부는 차와 간식, 경로부는 대원들의 애경사를 챙기고, 관리부는 악보와 가운을 관리한다. 교육부는 대원들이 음악 외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교육적인 면들을 살펴보고 1년에 한 번 있는 수련회도 준비한다. 올해의 수련회도 준비 중인데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되도록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홍보부는 '새롭지'라는 신앙에 도움을 주는 내용과 광고 등을 알리는 할렘루아찬양대만의 신문을 만든다. 신입부는 신입 대원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이 부서들의 담당자들이 행사들을 계획하면 모든 대원들은 그 행사에 열심을 다해 동참한다. 그리고 할렘루아찬양대 안에는 솔로리스트부와 남성중창단과 혼합중창단도 있다. 이들은 주일 예배 전 찬양과 금요집사의 찬양을 주로 담당하며 찬양을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

주임마다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보람 차기만 하다는 할렘루아찬양대원들이 올 한해도 결적, 양으로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발전되길 바란다. 그리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칠 줄과 습속이 하나까지도 정성으로 바칠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대로 계속 섬기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글/박주영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 지난해 교회 설립 45주년 감사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했다.



지체들 소식

영아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1월 10일 주일 설교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이찌 사랑할 수 있으며 형제와 화해되지 않고서 이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엄중한 말씀이었다. 우리들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팔짱끼고 마음보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요셉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금년 한해 동안 지킬 새 계명으로 새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양보하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송혜경 통신원)

유년부
찬양대 새출발 탄생

지난 1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 유년부 찬양대 연습실에서 오디션이 있던 후 110명의 어린이가 찬양대원으로 1년간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 연습은 매주 일 9시 30분 찬양대 연습시간에, 음악과장님으로 금년 새출발 봉사하시는 이희자 집사님은 온 가족이 음악을 사랑하시는 음악가집사이시답니다. 또 박철성주라는 별명만큼 예쁘고 친절하신 안선희 지휘자 선생님과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함께하시어 아주 곡수나 척척 소위해내는 진지연 반주자 선생님께서 작년에 이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금년에도 하

남민개는 영광이요, 듣는 이에게는 큰 은혜를 끼치는 힘찬 영의 찬양을 기대합니다. (윤순희 통신원)

중등1부
대성명 시작

날씨가 정말 춥네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1남씨에 이렇까지 않고 대성명을 시작하였습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한 겹한 짐을 돌아보면서 가장 형편을 파악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100% 출석을 목표로 삼았습다. 가정실망은 방학동안 하는 것이 좋습다. 개학하게 되면 학원다느라 시간맞추기가 힘들 거요. 우리 선생님들 멋지죠? 한 열등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각오와 다짐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지 알 것 같습니다. (강영희 통신원)

중등2부
기도원에서 교사 일일수련회

기도원에서 교사 일일수련회를 갖고 99년도 중등2부의 전반적인 목회계획을 점검하였다. 올해의 교육목표는 '새 지모로 변화되는 삶'이다. 교사들은 그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놓고 함께 손을 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친교시간에는 교사 이름 외우기 게임을 했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사는 친구가 되어 호칭과 경어를 생략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바탕 웃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서먹했던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었다. (심순옥 통신원)

9교구
모이먼 기도하고 흠아지면 전도하자

교구 목사님의 선창으로 금년도 교구 표어를 힘차게 외치며 한나여전도회를 선두로 남나전도회 1월 월례회가 시작되었다. 지역적으로 교회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에 더욱 모이에게 힘쓰며 사랑의 봉사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9교구 식구들은 남나전도회에 열심히 참여하여 주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헌신을 이루어간다. 새해 첫 월례회를 시작하는 남나전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9교구가 더욱 부흥되기를 기도드리며, 디도대 후서 4장 2절을 올해 교구 성구로 정하고 마음을 열든지 못얻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힘쓰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정옥희 통신원)

14교구
동계 농어촌 전도 날짜가 정해졌습다

올해로 작년에 이어 거제도 영광교회로 전도활동을 갑니다. 전도대원들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구 전체의 전도활동입니다. 한 명의 방관자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위해서 기도와 격려와 후원이 있어야겠습다. 각 교구에서 또는 교회

학교에서 전도회에서 각자 속해 있는 곳에서 각각 전도와 선교를 하는 총연합회는 살아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주님 앞에 정한대로 교회로 세워져 가진 소원합니다. (이애나 통신원)

15교구
깨어있고 준비된 삶

"즐거서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만"으로 서두를 깨신 목사님이 "○○○ 집사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셨다. 교구 식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지금까지 교육받아 왔던 익숙한 방법을 듣고 암기하고 시험을 보는 선택하여 답을 고르는 것이다. "예, 아니요"는 대답할 수 있으나 "왜" 어떻게 라는 이유와 방법을 몰론은 당황하게 된다. 말씀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훈련이 부족하여 자신감이 없고 남에게 전달하기에는 스스로 위축되어 침묵하는 편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목사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지명하여 답을 요구할 때가 종종 있다. 이제는 공과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실제로 준비할 때 관찰력도 생기고 정리하여 말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을 믿는다. "... 너희 속에 있어도 사랑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라는 말씀처럼 잘 전달 할 것이 개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보는 시간이었다. (한순희 통신원)

교회 소식 / 목장칼럼

알림

1. 신교주일 안락 / 24일(다을 주일)은 신교주일입니다. 기도로 신교주일들을 화성하기 바랍니다.
2. 만민일 신심대원 교구 / 물결지기 연구 가능한 성도들 중 함께 봉사할 성도들을 모집합니다. 문의 / 노순국 권사(548-6823), 이연순 집사(3463-0434)
3. *도임
1. 장로 회오세백기도회 / 19일(화) 세백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2. 안락집사의 필로사비기도회 / 18일(월) 세백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3. 주일모임 / 24일(다을 주일) 오후 15:00-16:30, 강림리동
4. 장로회위원회 월례회 / 오는 안락예배 후, 장로회위원회실(합성: 찬양위원)
5. 제3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는 15:00, 신교관 301호
6. 제2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는 10:00, 교육관
7. 제3교육위원회 월례회 / 오는 12:00, 교육관 115호
8. 삼일안전도회 목회기도회 / 21일(목) 세백기도회 후, 삼일안전도회실
9. 교회회 제2위원회 월례회 / 20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남녀전도회

1. 바울 3 / 19일(화) 18:00, 만나루
2. 바울 4 / 24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3. 바울 5 / 21일(목) 18:30, 만나루
4. 바울 6 / 21일(목) 18:00, 강림리
5. 바울 7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자관 지하1층
6. 바울 11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07호
7. 바울 13 / 오는 교구모임 후, 만나루
8. 바울 16 / 오는 교구모임 후, 영아부실
9. 베드로 3 / 23일(토) 18:00, 홍곡교회(영양동)
10. 베드로 4 / 24일(토) 19:00, 안동철 집사(532-3474)
11. 베드로 5 / 24일(토) 19:30, 안동철 집사(532-3474), 568-0905
12. 베드로 6 / 19일(목) 19:00, 세영가(563-1334)
13. 베드로 7 총회 송회 / 21일(목) 19:30, 김동 향음곡
14. 베드로 9 / 21일(목) 19:00, 상봉동 가문배루
15. 베드로 11 / 21일(목) 18:30, 서영성 집사(2231-8884)
16. 베드로 16 / 23일(토) 16:00, 회장루
17. 요한 16 / 24일(토) 16:30, 영아부실
18. 요한 7 / 24일(토) 18:30, 만나루(문의 567-8507)
19. 요한 13 / 24일(토) 18:00, 김형주 집사(대부실) 중동 연해바를 대인(1421-105)
20. 한 나 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5호
21. 한 나 13 / 오는 교구모임 후, 만나루
22. 한 나 17 / 오는 교구모임 후, 아만루
23. 예레미 1 / 오는 교구모임 후, 아만루
24. 예레미 2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자관 지하2층
25. 예레미 3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07호
26. 예레미 7 / 오는 교구모임 후, 복자관 지하1층
27. 예레미 10 / 오는 교구모임 후, 교구모임장소
28. 예레미 11 / 오는 교구모임 후, 배후라기루
29. 예레미 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314호
30. 예레미 13 / 오는 교구모임 후, 만나루
31. 예레미 14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401호
32. 예레미 15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212호

33. 예레미 17 / 21일(목) 11:00, 사랑가(0342-707-7697)
34. 루디아 1 / 18일(화) 11:00, 강림리동
35. 루디아 2 / 18일(화) 11:00, 강림리동 집사(543-7460)
36. 루디아 4 / 21일(목) 11:00, 이전에 집사(3474-8194)
37. 루디아 5 / 19일(목) 11:00, 생영가(563-1334)
38. 루디아 6 / 19일(목) 11:00, 오수루
39. 루디아 7 / 19일(목) 11:00, 선두관(수리방가)
40. 루디아 8 / 19일(목) 12:00, 합성리(2298-1999)
41. 루디아 12 / 오는 교구모임 후, 교육관 115호
42. 루디아 14 / 24일(다을 주일) 교구모임 후, 본당 116호
43. 루디아 16 / 19일(목) 11:00, 한하수 회장루
44. 루디아 17 / 19일(목) 11:00, 우영회 회장루
45. 마리아 2 / 19일(목) 10:30, 양정숙 집사(3442-5966)
46. 루디아 5 / 19일(목) 12:00, 합성리(2298-1999)
47. 마리아 6 / 19일(목) 11:00, 주매리 집사
48. 마리아 12 / 19일(목) 10:00, 홍천교회(교도출발)

*결혼

1. 김대성 군(강남조장로, 송두배 집사의 아들)과 신현경 양(산수남 장로, 정성자 집사의 딸, 6교구) / 1월 19일(화) 13:00, 강림리동
2. 이진구 군(이재관 집사, 최영숙 집사의 아들, 17교구)와 배경민 양(영남대원 처, 서순숙 씨의 딸) / 1월 24일(토) 12:30, 강림리동
3. 신종재 군(산수남 처, 주옥자 씨의 아들)과 전성희 양(전지향 설도, 서순숙 씨의 딸, 10교구) / 23일(토) 13:30, 사랑가(호호동 1층 로얄볼룸)

*별세

1. 안정복 성도(안정선 권사 부친, 박정우 집사 장인, 12교구 중산구) / 1월 9일 별세, 101년 장례
2. 박석현 성도(마리아 성도 부친, 제비자 성도 사부, 16교구 수련2구) / 1월 12일 별세, 141년 장례
3. 서영진 권사(송문회, 송문영 성도 모친, 16교구 장흥10구) / 1월 13일 별세, 151년 장례
4. 이재복 원로권사(김희자 권사 모친, 6교구 우성4구) / 1월 14일 별세, 161년 장례

*주제일 회회변호 변경

1. 김영일 집사, 이희순 집사 / 경기도 용인군 수지구 죽전리 1003-8 동성224-206-1705, 전화: 0331-264-8891, 직장전화: 508-3852

사신 적으세요

99년도 신심 남녀 서리집사들께서는 제직사건전에 실려 사신을 1월 중으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 * 적는 곳: 홍보실(신교관 408호)
- * 적는 때: 주일 오전 8시 30분~오후 4시 30분, 수요일 낮 12시 30분~오후 7시, 금요일 오후 6시~7시

세기구를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	인도자
77	이종진	4	고등부	박숙경(17)	84	권두철	19	청년1부	김금숙(9)	91	박순웅	19	대학부	
78	이선화	11	베드로	원길자(11)	85	이지연	19	청년1부		92	이정열	4	대학부	
79	이예령	5	대학부		86	홍재희	2	청년1부		93	김지미	19	청년1부	김영일(13)
80	윤혜민	16	대학부	윤상열(16)	87	김수연	19	청년1부		94	한정숙	19	청년1부	
81	배기성	19	대학부	윤혜민(17)	88	김소연	1	고등부		95	박명길	19	청년2부	임수진(16)
82	정혜영	19	대학부		89	김종홍	3	청년2부		96	김복배	19	대학부	
83	박경덕	19	청년1부	임순록(7)	90	김정수	6	베드로		97	한윤미	7	마리아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세기구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목장칼럼

사랑이 있는 곳에

김 필 수(목사, 12교구 지도)

우리 12교구에서 영동동로 이자간 김동욱, 이자간 집사님 집에 실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마치 커튼은 작은 양치리 토실토실한 예찬을 개(슈리)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슈리가 김 집사님 집에 살면서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자라고 있는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슈리를 주어다 길렀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주변에 집일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는데 주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주인을 만나지 않고 아파트 경비실에 "그가 자다가 풀이 먹었다"라고 농담을 하더군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그 불쌍한 강아지를 '슈리'라 이름짓고 돌보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슈리에게는 심각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서 버림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김 집사님은 동물병원에서 수차례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3-4만원씩 진료비가 들었답니다. 몇 번이나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자 수의사는 혹시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면 피부병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면서, 30만원이 드는 제왕절개 수술비를 20만원에 해주었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고나서 슈리는 디디어 건강하게 되었다답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 가족들은 슈리를 볼 때마다 커워워 먹이고, 바리바리는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워 먹이고 하다보니 그렇게 토실토실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 실직한 아버지에게 강제로 생활비를 받던던 주매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들의 신고를 받고 위탁부도를 맺어 주는 일을 한 사람이 제 친구인자 사연을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 사연을 전하면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슴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김 집사님들과 슈리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묵음인 소리도 한 마디 외치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1월 24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2부예배
오르간 백곡

(가브리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거룩한 성
- 참 아름다워라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 주기도

3부예배
임나델여성중창단

(찬양곡목)

- 오 새 노래로 주 찬양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주께로 한결유익
- 부름받아 나신 이름

4부예배
임나델여성중창단

(찬양곡목)

- 오 새 노래로 주 찬양
-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 주께로 한결유익
- 부름받아 나신 이름

5부예배
바이올린 주자

(선교전도 오케스트라)

(찬양곡목)

- 참 아름다워라
-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고
- 주기도문

충헌 중보의 창

1999년 한해 동안 우리 교회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천국일꾼을 양성하는 교회,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소서.

김창진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관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선교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잘 증거하게 하시며, 24일 선교주일을 기점으로 충헌의 성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을 더욱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99년도 전반기 충헌 소적장학생들을 선발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천국 일꾼을 양성하게 하소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교회학교 겨울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이 새 힘을 얻어 한해 동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소서.

1999년 2월 3일~6일까지 있을 제2회 전국 찬양대 지도자 강습회를 통해 주님의 뜻에 따라 헌신하고 더욱 빛나는 영혼의 찬양대가 되게 하소서.

2월 22일~24일에 진행될 제1회 목회자간기세미나에 전국의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여 복음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얻게 하소서.

*원로목사

김창진

*위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갑수 정형훈 김재철 이순수 정갑신

정현민 조준환 조병기 김동하 차병준

김명태 김진희 김관현 서광진 이송하

정혜성 박노철 이준환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원

*선교사

이준교 안석필 김영태

*원로전도사

이두란 최순복

*여전도사

정연희 현정강 정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민 최희재 손미희 송향자 신동자

윤진숙 오순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훈

박창화 김영숙 박복순 최영란 김진석

*교전전도사

박양덕

*교육전도사

박기인 염원일 한승일 김영기 송원식

김창중 조희문 허용구 이후한 김병수

이종대 김윤식 김일승

*선교전도사

정은희 박대환

*평신도선교사

유병재 김형현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허요셉